

선진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ESCO 발전 기대

Hansen 박사는 세계 25개국을 돌아다니며 ESCO와 관련된 자문을 행한 결과 각국의 사정에 알맞은 제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최된 한·미 ESCO 기술협력회의는 미국의 선진기법을 통해 한국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편집자주)



미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내 ESCO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국제 온실가스저감 협력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ESCO 기술협력 회의가 개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대책반(반장 노종환)이 주관한 이 회의는 지난 1월24일부터 27일까지 공단 회의실에서 SEMPRA, DUKE, HANSEN 등 미국 ESCO 관계자 5명과 최석곤 회장, 오자현 부회장 등 ESCO협회 및 ESCO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첫째날 한·미 ESCO 협력방안 회의에서는 전직 미국 에너지부 학교 및 병원 에너지절약담당 과장이자 HANSEN Associates 설립자인 Shirley Hansen 박사로부터 에너지성과배분계약(ESPC) 사례, 위험관리, 마케팅, M&V(Measurement and savings verification), 자금조달, 국제협력 등에 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미국 굴지의 ESCO인 DUKE사(Wai Chan)와 SEMPRA 사(Andy Beggs)의 실무 엔지니어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소개받았다.

이에 앞서 최석곤 ESCO협회장과 오자현 부회장은 방한단(단장 Dave Howard)에 대하여 “선진기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기준 ESCO팀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국내 ESCO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첫 날 강의에 참석한 ESCO들은 삼성에버랜드, EPS KOREA, 코텍, 동아건설, 대우 등이었으며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국내의 ESCO들끼리 의견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둘째날에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협력 시범사업(TCAPP)참여를 희망한 삼성에버랜드, EPS코리아 등 3개 회사와 협의하여 발굴한 프로젝트 회의가 이어졌다.

이중 EPS 코리아는 미국 ESCO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시범진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일과 27일에는 Hansen 박사로부터 IGA(Investment Grade Audit)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내용은 Hansen 박사가 지난 99년 미국 에너지관리자협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한국 실정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진단기술자들이 자금조달에 필요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Hansen 박사는 "미국에서 ESCO가 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ESCO의 모범은 아니다. 세계 25개국을 다니며 살펴본 결과 각국의 상황에 맞는 ESCO의 모델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단은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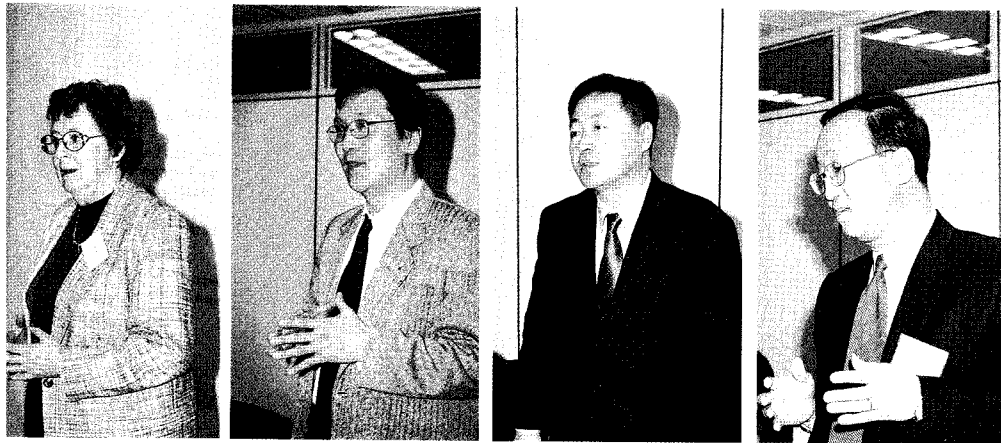
※ 온실가스 저감 기술협력 시범사업(TCAPP)이란?

TCAPP(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Pilot Project)는 기후변화협약 4조5항(개도국에의 기후변화 기술이전) 이행을 목적으로 97년 8월 미국정부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U.S.EPA(환경청), DOE(에너지부)가 관리를 맡고, U.S.AID(국제개발청)가 자금을 조달하며, NREL(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참여국은 브라질, 중국, 카자흐스탄, 멕시코, 필리핀 등이다.

이 사업은 1단계(우선순위 결정과 투자 부문 정의 등 협력 Framework 작성)와 2 단계(시장 장애요인 제시 및 제거활동, 국제 투자 프로그램)로 나뉘어 추진되며 참여국 주도의 개발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달성, 민간투자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주요한 추진내용을 보면, 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동시달성을 위한 기술의 우선순위 설정, 선정된 기술에의 투자촉진을 위한 국내 기관 및 민간투자 부문을 정의한 1단계 기술협력 Framework 작성, 기술보급 시장장애요인 제거활동,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진입안내 및 투자요인을 위한 국제업체와의 연계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98년 9월 미 국무성 차관보 방한시 에너지기술 등 4분야에 대한 협력을 합의함으로써 참가하게 되었고 99년 6월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ESPC사례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Shirley Hansen박사(왼쪽), 노종환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장, 최석근 에스코협회장, 오자현 부회장



현재 TCAPP-KOREA의 협력대상 과제는 에너지진단 및 ESCO, 히트펌프를 이용한 폐열회수, 유기성 폐기물 통합소화, LED신호등, 전기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이며 99년 5월 설명회시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삼성 에버랜드(주), (주)EPS KOREA, (주)대우 3개 업체이다.